

2011.10.04 미래정책연구실

□ 미국, 푸드 스탬프의 지원 및 이용연황

1. The Wall Street Journal(2011.09.26) 주요 내용

- USDA는 지난 23일 '2010년 미국 영양보충지원계획 가구의 특징'(Characteristics of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(SNAP) Households: Fiscal Year 2010)을 통해 푸드 스탬프(Food Stamp)의 지원 및 이용 현황에 대해 발표함.
 - ※ 스냅(SNAP)은 2010년에 변경된 푸드 스탬프의 새로운 이름임.
- USDA에 따르면, 2010년 **4천만명 이상**의 국민과 1천 9백만 가구가 푸드 스탬프의 지원을 받고 있음.
 - 푸드 스탬프를 지원받는 가구의 70%는 2010년에 근로소득이 없었음.
 - 푸드 스탬프를 지원받는 사람의 47%는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이며, 8%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임.
 - 푸드 스탬프를 지원받는 가구의 35.7%는 백인계 미국인, 22%는 아프리카계, 10%는 히스패닉계임.
- 미국 경제의 불황으로 빈곤층과 실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의 지원율은 증가추세임.
 - 근로소득이 '0'인 가계는 2007년 15% 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20% 수준으로 증가함.
 -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던 5월에는 4,080만 명이 지원하였으며, 이는 2009년 동기간 대비 800만 명이 급증한 것임.
- 2011년 현재 최대 수령액은 1인 가구일 경우 매월 200달러, 2인 가구 367달러, 3인 가구 556달러, 4인 가구 668달러 수준임.
 - 지난해 푸드 스탬프 평균 수령액은 1인당 134달러임.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